

『동트기 전(夜明け前)』과 국학

임 성규*

1 들어가는 말

신도가의 신도론에도 여러 가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꾸밈없이 이야기하면, 문헌상에 신도라고 칭하여지는 용례는 대개 둘로 나누어진다. 소박한 의의는 신의 의사존재를 고대 생활 각각의 양식에 인정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畢竟은 이들 고대 생활을 규정하는 통일 원리에 정착하는 것이다.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우리들의 전통을 이어 온 「国学」이다. 때문에, 신도가 귀하는 곳은 일본 본래의 종교 및 고대 생활의 규범이고, 국학은 신도를 위한 신학, 바꾸어 말하면, 고대 생활연구의 일본과를 담당하는 것이다.

(神道家の神道論にもいろいろある。私の思ふ所をぶつきらばうに申せば、文獻の上に神道と稱せられている用語例は、大體二つにはひて来る。素朴な意義は、神の意思の存在を古代生活の個々の様式に認めて言ふのであつた。併し、畢竟は、其等古代生活を規程する統一原理といふ事に落ちつく様である。其を對象とする學問が、私どもの傳統を襲っている「國學」である。だから、神道の歸する所は、日本本來の宗教及び古代生活の軌範であり、國學は神道の爲の神學言ひ換えれば、古代生活研究の一分科を受け持つものなのである。)1)

(「古代生活の研究」—常世の國—)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의 신도론은 근세국학의 신도론, 즉 복고신도의 개념을 계승하고 있다. 국학은 신도학의 개념으로, 국학은 고대생활의 규범원리라고 말하고 있다.

국학이란 무엇인가? 국학은 에도(江戸)시대에 발생한 학문이고, 기(紀)·기(記)·만요(萬葉)등, 일본의 고전을 문헌학적으로 연구하고, 일본고유의 문화를 규명하려고 한 것으로 케이추(契沖)·荷田春滿·賀茂真淵·本居宣長·平田篤胤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학문이다. 지금 논한 국학의 정의는 극히 사전적 의미인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국학이란, ‘일본인의, 일본인에 위한, 일본인을 위한, 자기인식의 학문이고, 자기실현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곧 국학은 일본의 역사, 문학, 종교, 예술, 사상을 포괄하는 일본 문화 연구이고, 그 중심에는 신도가 있다. 신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의하여 일본학과 국학의 상위가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도손의 국학사상이고, 『동트기 전(夜明け前)』속에서, 국학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에 대해서이다. 도손은 국민학술협회기획의 동협회 총서(소화 16년 『회고』)에서 「과거야말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나마 오늘을 반성하는 재료로 생각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의미있는 언어이다. 그러나, 어떻게 과거를 찾을 것인가? 과거가 죽은 것이 아닌 이상, 이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2)라고 말하고, 아버지 시마자키 마사키(島崎正樹)의 시대를 거슬러 찾기 시작한다. 도손의 아버지 마사키(正樹)는 히라타 아츠타네(平田篤胤)가 죽은 후 히라타파 문인의 한사람으로, 도손도 어릴 적부터 국

* 천안대 일본근대문학전공

1) 『折口信夫全集』第二卷(昭和四十年十二月、中央公論社)

2) 昭和16年「回顧」

학자의 교양을 가까이에서 배우며 자랐다. 『동트기 전(夜明け前)』에 그려진 히라타과 국학의 평가는 다음 편에 미루기로 하고, 예를 들면,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저서를 읽고, 거기에서 익힌 「고대인에게서 볼 수 있는 저 끝은 마음은,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은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에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싶다 (古代の人に見るやうなあの直ぐな心は、もう一度この世に求められないものか。どうかして自分等は出発點に歸りたい。そこからもう一度この世を見直したい)」 (1의3의1) 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소박한 생명감에 입각한 도손의 요구이기도하다

2 어두운 중세의 부정

일본역사에서 말하는 중세는 12세기에서 16세기의 카마쿠라[鎌倉]·무로마치[室町]경을 나타내지만, 중세는, 이제까지 지배세력이었던 귀족(公家)을 대신하여, 신흥 무사가 정권을 장악하고, 봉건제도를 구축한 시대이다. 지역적으로는 교토[京都]와 鎌倉, 카마카타[上方]와 관동, 계급적으로는 귀족(公家)과 무사, 문화적으로는 미야비(みやび)와 아라비(あらび)와의 대항이었다. 뒤에 올 전국시대를 대기하며, 정치가 혼란한 하극상의 시대이고, 암흑의 시대이기도하다.

간사이는 또한 히라타과의 국학자이다. 그가 늘 선배로부터 배우는 것은, 어두운 중세의 부정이었다. 중세이래 학문 도덕의 권위로서 이 나라에 들어온 한학 풍의 인습으로부터, 불가에서 가르치는 사물을 보는 견해에서부터도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고대인의 심정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마음 넉넉히 이 세상을 다시 보자는 것이었다. 일대 선구, 荷田春滿을 비롯해서, 賀茂眞淵、本居宣長、平田篤胤、그들 여러 대인이 계승해온 일대만항 정신이 거기서부터 태어나 온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사물을 배우는 동지]의 길은 멀다. 만일 그 길을 추구해가려면, 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앙에, 앞으로 반대를 보일지도 모른다.

(寛齋はまた平田派の國學者である。この彼が日頃先輩から教へらるゝことは、闇い中世の否定であつた。中世以來學問道德の權威としてこの國に臨んで來た漢學び風の因習からも、佛の道で教へるやうな物の見方からも離れよといふことであつた。それらのものゝ深い影響を受けない古代の人の心に立ち歸つて、もう一度心寬かにこの世を見直せといふことであつた。一代先驅、荷田春滿をはじめ、賀茂眞淵、本居宣長、平田篤胤、それらの諸大人が受け継ぎ受け継ぎして來た一大反抗の精神はそこから生れて來てゐるといふことであつた。彼に言はせると、[物學びするともがら]の道は遠い。もしその道を追ひ求めて行くとしたら、彼が今待ち受けてゐる人に、その人の信仰に、行く行く反對を見出すかも知れなかつた。)

(1의2의1)

중세는 각양각색의 대립과 대항을 포함하면서, 유교, 불교, 신도의習俗사상을 품은 시대이기도하다. 그것은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가 말하는 「통일 되지 않는 신들의 行狀(統一なき神々行狀)」의 세계였다

한조(半蔵)는 학문을 좋아하고, 기소가도에 위치한 마고메[馬籠]에서 숙박업과 도매업을 경영하고 촌장을 역임하여 자연히 견문도 넓고, 빨리 학문의 길에 들어갔다. 한조가 입문한

학문은, 이윽고 그의 아버지도 놀라게되는 국학의 한파인 히라타파의 입문이다. 한조가 배운 국학의 정신은 어두운 중세의 부정이며, 거기에서 시대의 반항정신이 생겼다.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인습·사상에서 벗어나, 고대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을 다시 보자 라는 것이다. 이 국학 정신은, 시대의 반항정신의 초석이 된다.

어떤 시대에도 새로운 사상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반항정신이 계기가 되어 나타난다. 새로운 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비극이 나타나고,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의 생애는 그 비극의 상징이기도하다.

그러면 신도는, 중국의 노장의 뜻과 같으냐고, 어떤 사람이 의아해하며 물으면, 대답하기를, 그 노장 같은 이들은 유자의 영리한 체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 자연을 존경해, 스스로 닮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들도 신국이 아닌, 악국에서 태어나, 단지 대대로 성인의 설만을 들어왔던지라,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단지 성인들이 생각하는 의미자체로, 모든 것은, 신의 마음에서 나와 그 행위 또한 大旨의 대단히 고귀한 것이거늘.

(然らば神の道は、からくにの老莊が意にひとしきかと、或人の疑ひ問へるに、答へけらく、かの老莊がともは儒者のさかしらをうるさみて、自然なるをたふとめば、おのづから似たることあり。されどかれらも、大御神の禦國ならぬ、悪國に生れて、たゞ代々の聖人の説をのみ聞なれたるものなれば、自然なりと思ふも、なほ聖人の意のおのづからなるにこそあれ、よろづの事は、神の於心より出て、その御所爲なることをしも、えしらねば、大旨の甚くたがへる物をや。) (『直毘靈』) 3)

한조에게 있어서는 국학자로서 대선배인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가 이룩한 일은 빛나게 보였다.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古事記』 연구는, 일본의 건전한 국민성을 고대에서 발견하는 단서가 되었다. 유교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도덕, 선종과 도교라는 형태로서 보여지고있는 중국의 종교, 이것들 소위 「한마음(漢ごころ)」을 버리고, 오직 신의 뜻 그대로인 고대로 돌아가라고 주장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소위 인의예양효제충신 등이라는 언행을 정하고 인간을 속박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을 비웃듯이 출현한 사람이 大人(모토오리 노리나가)이다. 大人이 고대 탐구에서 발견한 것은 「나오비노 미타마(直毘の靈)」 정신이고, 즉, 자연으로 돌아가라 「(自然に歸れ)」라는 정신이다. 밝은 「세계의 계시」도, 「고대복귀의 몽상」도, 「중세의 부정」도, 「인간의 해방」도, 「연애관」도, 「모노노아와레(物のあわれ)」의 미의식도, 모두 「나오비노 미타마(直毘の靈)」 정신이 그 근간에 있다. 한조등에게는 「스즈노야 노인(鈴の屋の翁)」을 「근대(近つ代)」의 사람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스즈노야 노인을 인정하고 있었다. 한조 등에게 「중세(中世)」란 「이국에서 빌려온 문물(異國の借り物)」의 영향하에 있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시대의 일본인은 「건전한 국민성(健全な國民性)」을 갖지 않은 것이 된다. 한조는 『나오비노 미타마(直毘の靈)』 논에서, 무가정권의 시대가 「중국에서 온(漢意移つた)」 「중국에서 배운(漢國から學んだ)」 정치제도의 시대였다고 인식한다. 노리나가의 가르침은 무가시대 이전의 「긴 세월 천황의 정치(御世々々の天皇の御政)」 시대로의 회귀(復古)의 주장인 것을 알 수 있다.

한조가 말하는 「중세의 부정(中世の否定)」의 이면에는, 필자인 도손의 〈현재의 부정〉 사상이 복선으로 깔려있다. 『과계』 『집』 『신생』에서, 각각 우시마츠·삼키치·스테키치에

3) 吉川幸次郎「本居宣長集」(一九六九年三月、筑摩書房)

게 자신의 사상을 가탁한 도손이, 『동트기 전(夜明け前)』에서는, 한조에 가탁하여, 〈현재의 부정〉을 조용히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소화 초년 대에 일어난 사상적인 탄압·조직해체·세계공황·만주사변 돌발 등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상황의 부정이 내재되어있어, 거기서 〈근대(近つ代)〉를 초조히 기다리는 도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국학자로서 여러 대 선배의 창조의 위업은, 옛날의 고로 돌아가라고 가르친 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고를 발견한 점에 있다.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조는 새로운 고를 인지해 나가는 「근대」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 새로운 고는, 중세와 같은 권력만능의 껍질을 버리는 것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 왕과 백성밖에 없었던 상대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출발점에서 다시 보는 것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가 귀착한 해석 방법에 의하면, 고대로 돌아가는 것은 즉 자연에 돌아가는 것이고, 자연에 돌아가는 것은 즉 새로운 고를 발견하는 것이다. 중세는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근대를 맞이해야만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대의 생활을 뿌리부터 뒤집어 엎어서,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다.

(國學者としての大きな諸先輩が創造の偉業は、古ながらの古に歸れと教へたところにあるのではなくて、新しき古を發見したところにある。そこまで辿つて行つて見ると、半藏は新しき古を人智のますます進み行く「近つ代」に結びつけて考へることも出來た。この新しき古は、中世のやうな權力萬能の殻を脱ぎ捨てることによつてのみ得らるゝ。この世に王と民としかなかつたやうな上つ代に歸つて行つて、もう一度あの出發點から見直すことによつてのみ得らるゝ。この彼が辿り着いた解釋の仕方によれば、古代に歸ることは即ち自然に歸ることであり、自然に歸ることは即ち新しき古を發見することである。中世は捨てねばならぬ。近つ代は迎へねばならぬ。どうかして現代の生活を根から覆して、全く新規なものを始めたい。)

(1의12의2)

히라타와 문인인 한조는,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학문에 심취하고 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사상은 「자연으로 돌아가라(自然に歸れ)」라는 말에 응축되어있다. 한조는 「고대로 돌아가는 것은 즉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고대를 발견하는 것(古代に歸ることは即ち自然に歸ることであり、自然に歸ることは即ち新しき古を發見することである)」이라고 생각한다. 「古」란, 역사의 연속성 속에 흘러가는 일정한 시간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古」란, 그것을 포함하여, 역사를 초월하여 사람들 속에 소생하는 「새로운古(新しき古)」이고, 오리쿠치 시노부가 말하는 「(고대의 현현(古代の顯現))⁴⁾이기도 하다. 이것이 「古」인 것이다. 이리하여 「새로운古(新しき古)」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소생하여 온 가장 「현 시점에서의 개체에 가까운 근원부분을(現時點での個體に近い根源部分)」⁵⁾을 말하는 것이고, 「근대(近つ代)」즉, 바로 도래할 미래를 가리킨다. 이 「근대(近つ代)」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중세와 같은 권력만능의 껍질(中世のやうな權力萬能の殻)」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中世」란, 역사의 연속성 속에 있으며,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한 세계, 권력만능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껍질(殻)」이란, 권력 하에 자행되는 의도·사건·확신이다. 한조도 「근대(近つ代)」를

4) 『折口信夫全集』第二卷(昭和四十年十二月、中央公論社)

5) 須藤宏明 「『夜明け前』における「私」の問題・その極端と希求」(一九九二年二月、青山学院高等部)

맞이하기 위해, 현재를 「뿌리에서부터 뒤집어(根から覆し)」서 세상 바로잡기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인다. 이와 같이,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는 국학사상은 「근대(近つ代)」와 관련하여, 近代로 연결된다. 여기에서 도손은 한조에 가탁하여, 「껍질」에 쌓여있는 권력만능의 현대를 날카롭게 비난하고, 조용히 현재 사회의 해체·재편을 제기하고 있다.

3 근세의 국학자들

도손은, 국학사상에 경도하고 있는 한조를 통해서 근세의 국학사상 둘을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나오비노미타마(直毘靈)』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自然に歸れ)」라고 하는 복고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히라타 아츠타네의 『정의 암실(靜の岩屋)』을 통해 나타난 「일체 신의 마음이다(一切は神の心であらうでござる)」라는 사상이다.

많은 패업의 허위, 국가의 쟁탈, 권모와 술수와 교지, 제도와 도덕의 가면 등을, 『直毘靈』에서 비웃고 있다. 北條, 足利를 비롯하여, 織田, 豊臣, 徳川 등 무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써있지 않지만, 조금만 주의해서 읽는다면, 이 나라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直毘靈』속에 또한, 중세이래 정치 천하의 제도가 중국의 것을 옮긴 것으로, 이 나라의 백성들 마음에까지 그 뜻이 옮겨졌다고 한탄하고 있다. 「천황의 마음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건방진 마음을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즉 이국에서 배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가시대이전에—더욱 정확히 말하면, 楠氏와 足利氏와의 대립도 없었던 무가 이전의 암시가 여기에 있다. 여러 세대 천황의 정치는 마침내 신의 정치였다. 거기에는 스스로 신도가 있었다 라고 가르쳤다. 신도란 道란 주장조차도 없었던 자연이었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多くの覇業の虚偽、國家の爭奪、權謀と術數と巧智、制度と道德の假面などが、この『直毘の靈』に笑つてある。北條、足利をはじめ、織田、豊臣、徳川なぞの武門のことはあからさまに書かれてないまでも、すこし注意してこれを讀むほどの人で、この國の過去に想ひ到らないものはなからう。『直毘の靈』の中には又、中世以來の政治、天の下の御製度が漢意の移つたもので、この國の青人草の心までもその意に移つたと歎き悲しんである。「天皇尊の大御心を心とせずして、己々がさかしらごゝろを心とする」のは、即ち、異國から學んだものだと言つてある。武家時代以前へ—もつと精しく言へば、楠氏と足利氏との對立さへなかつた武家以前への暗示がこゝに與へてある。御世々々の天皇の御政はやがて神の御政であつた、そこにはおのづからな神の道があつたと教へてある。神の道とは、道といふ言擧げさへも更になかつた自然だ、とも教へてある。) (1의12의4)

일본의 근세는 전국시대에 걸치며, 하극상의 시대를 지나, 노부나가(信長)·히데요시(秀吉)·이에야스(家康)의 三代에 걸친 천하통일사업으로 시작된 시대이다. 또한 근세는 신시대 도래의 예조 속에서 발현한 인간해방 정신과, 삼백 년에 걸친 정권을, 강권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였던 토쿠가와와 막번 체제와의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에 걸쳐서 상극의 시대라고도 불려진다. 막번 체제는 지배강화를 위해서 太閤檢地를 행하고, 그에 따라서 장원제는 완전히 해체되고, 石高制에 기초한 근세 봉건제도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壇家制度, 그리스도교압 등

종교정책, 五街道의 직할과 세키쇼(關所)의 제정, 大名制와 參勤交代, 村方三役과 五人組에 의한 農民 統制, 사농공상의 신분제도 등에서 보이는 것같이, 막번 체제는, 에너지, 통신, 정보, 운송, 군대 등에 걸쳐 지배체제를 교묘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일원적 또한 사적, 계층적인 주종관계인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와 윤리가 무가에게 요구되어, 유교가 무가정치의 지도 이념이 되었다. 주자학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윤리로서 대의명분이고, 합리주의적인 지배원리이고, 관념론이다. 주자학은 일본적 심정과 종교심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종교철학의 성격을 가지면서, 사물에는 「理」가 내재하고 있다고 말하여, 우주의 근원을 태극이라고 불리, 그 태극은 원리적·관념적 「理」이라고 설파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이는 한인이 만든 영악한 것으로, 주관적 산물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理は漢人の作り出したさかしら、主觀産物に外ならず、従ってそれは判斷の基準とはなりえない)」⁶⁾라고 말하고, 국학은, 이와 같이 「理」의 학(영악함·漢의 마음)에 대하여, 순수한 것에 감동하는 정서 (한결같이 곧은 마음·모노노아와레[ものあわれ]) 등 자연을 존중하고 긍정한다. 유교적인 합리주의와 관념주의를 지향하는 漢마음을 배척하고, 「말(言葉)」에서부터 고전에 들어가, 고어를 통하여 古事를 알고, 古道로 돌아 가려고 하였다.

도손은 『동트기 전(夜明け前)』에서 국학사상을 주로 대 외국관계에 한정하여 그리고 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학문은 「한 마음을 벗어버리다(漢ごころをかなぐり捨てる)」라고 하는 이국사상의 완전한 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히라타 아츠타네의 학문은 이국의 완전한 부정은 아니다. 이국의 문물이 일본에 들어오는 것은 신의 넓은 마음이라고 하여, 외래사상에도 충분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 한조는 히라타 아츠타네의 『정의 암실』을 읽고 국학이 이상으로 하는 사회와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자신의 학문의 부족함과 고루한 탓으로 돌린다. 아츠타네는 일본의 고대의 책 뿐 만 아니라, 중국 고대의 책, 인도의 고대의 책을 읽고 일본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였다. 학문은 처음부터 그 뜻을 큰 곳에 세우고, 속을 깊이 헤아려야 하며, 굳게 마음먹고서 실행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여기에 국학자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조의 마음에 그리는 히라타는, 저 모토오리 노리나가를 생각할 때마다 상상할 수 있는 미 장부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떤 사람의 소장품속에 그려진 선사의 화상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넓은 이마, 큰 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눈, 그가 그 화상으로부터 받은 느낌은 비교적 긴 얼굴에, 마른, 어딘가 네모진 곳이 있는 용모의 사람이다. 사십인가, 아니면 오십 정도의 긴 얼굴로 보여서, 아직 검은 머리털도 한창의 남자인 듯하고, 그것을 天保 시대의 풍격과 같은 머리모습이었다. 그것은 거울을 옆으로 한 좌상으로, 三蓋菱의 하오리의 문장과, 간소한 선이 나타난 복장의 襷褌에도 특색이 있지만, 특히, 그 왼손을 펼친 형태로 두고, 오른 손으로 白扇을 들은 무릎이야말로 선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심장을 멈추고 본 적이 있다. 거울 위에서, 선사 필생의 큰 저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사전』 고본의 하나가 그려져 있었던 것도 한조에게는 잊을 수 없었다. 흡사 선사는 저 화상에서 앞으로 바짝 나와, 그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은 신의 마음일 것이다」라고 고도 말하고 있는 듯이 그에게는 여겨져 왔다.

(半藏の心に描く平田篤胤とは、あの本居宣長を想ひ見る度に想像せらるゝやうな美丈夫といふ側の人ではなかつた。彼はある人の所藏にかゝる先師の畫像といふものを見たことがある。廣い角額、大きな耳、遠いところを見てゐるやうな眼、彼がその畫像から受けた感じは

6) 西郷信綱 「國學の批判」 (一九六六年十二月、未來社)

割合に麵長で、瘦せぎすな、どこか角張つたところのある容貌の人だ。四十臺か、せいぜい五十に手の届く年頃の麵影と見えて、まだ黒々とした髪も男のさかりらしく、それを天保時代の風格のやうな髻に束ねてあつた。それは見臺を側にした坐像で、三蓋菱の羽織の紋や、簡素な線があらはした着物の襷袢にも特色があつたが、殊に、その左の手を寬いだ形に置き、右の手で白扇をついた膝こそは先師のものだ、と思つて、心をとめて見た覺えがある。見臺の上に、先師畢生の大きな著述とも言ふべき『古史傳』稿本の一つが描いてあつたことも、半藏には忘れられなかつた。あだかも、先師はあの畫像から膝を乗り出して來て、彼の前にゐて、「一切は神の心であらうでござる」とでも言つてゐるやうに彼には思はれて來た。) (1の7の3)

히라타 아츠타네의 학문 사상은 작중에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가르침을 「조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단으로 가지고가서 실행에의 길을 열었다(祖述するばかりでなく、それを極端にまで持つて行つて、實行への道をあけた)」라는 것이 작중에서의 아츠타네에 관한 평가다. 노리나가 미장부적인 인물상으로 그려져 있는 것에 대하여 아츠타네는 남성적인 늠름함이 있고, 후학을 이끄는 힘이 있는 인물상으로서 그려져 있다.

와츠치 테츠로에 의하면, 『정의 암실』에 나타난 히라타 아츠타네의 사상에는 「변질자를 생각하게 하는(變質者を思はせる)」 것이 있지만 「변질자인 것은 광신을 전파하는 데에는 오히려 어울릴 것이다. 이윽고 이 광신적 국수주의도 근황운동에 연결되어, 막부도괴의 하나의 힘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광신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큰 해악의 뿌리가 된 것이다(變質者であることは狂信を傳播するには反つて都合がよかつたであらう。やがてこの狂信的國粹主義も勤皇運動に結びつき、幕府倒壞の一つの力となつたのであるが、しかしそれは狂信であつたがために、非常に大きい害惡の根として殘つたのである)」⁷⁾라고 논하고있다.

여기에서 오리쿠치의 아츠타네상을 살펴보면, 「그러면서 아츠타네 선생이란 사람은, 과연 모든 사람이 생각하듯이 늘 가난한 시늬를 하며, 콧물을 흘리면서 편협한 말을 하며, 화넛 듯한 표정으로 맛있는 것만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왠지 무서운 남인을 연상케 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을까?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츠타네 선생의 학문은, 아주 넓은 기풍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 대단히 큰, 넓은 씩씩이를 가지고 학문의 사도를 사랑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併しながら篤胤先生といふ人は、果して世間の人が見てゐるやうに、始終貧乏たれた風をして、水漬を垂しながら偏屈なことを言つて、怒りつぱく、まづい物ばかり食べて暮してゐた人、何か恐しい浪人をば感ずるやうな人、さういふ風に篤胤先生を受け入れていゝかどうか、其だけは私は違ふと思ひます。どうも篤胤先生の學問は、もつと廣い氣風を感ずる、何か非常に大きい、廣い掌を以て、學問の徒弟をば愛撫してゐるやうな感じがします)」「선생이란 사람은 『속신도대의』란 책을 쓰면서, 텐구와 같은 어린아이를 붙잡고, 그의 말을 열심히 듣고, 그를 의심하지 않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아츠타네 선생의 학문은 의심스러울 만큼 의심하지 않고, 일심 불란하게 기록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니까, 역시 아츠타네 선생의 문장은 대단하다(先生といふ人は『俗神道大意』といふ本を書いてゐながら、天狗の蔭間みたやうな子供を捕まへて、一所懸命聽いて、それを疑つてゐない。事細かしく書いてゐる。篤胤先生の學問も疑はしくなるくらゐ疑はずに、一心不亂に記録を作つてゐる。さういふ記録になると篤胤先生の文章がうまい)」⁸⁾라고 논하고있다.

7) 和辻哲郎『日本倫理思想史』下

8) 折口信夫,『折口信夫全集』第二十卷「平田學問の傳統」(昭和四二年六月、中央公論社)

도손은 한조로 가탁하여, 아츠타네를 전형적인 일본인, 절대신의 신봉자로서 그리고 있다. 오리쿠치는 아츠타네 상에서 「무언가 무서운 낭인을 느끼게 하는 (何か恐しい浪人をば感ずるやうな)」 국수주의자의 잔영과, 신 신봉자 상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 한조등의 국학자는, 아츠타네의 힘에 끌려,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복고사상의 실천,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실천, 실행의 정신은, 흑선 내항 이후의 시대상황과 함께, 국학자에게 정치, 사회운동에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근황운동과 종교개혁운동의 두 가지의 흐름이 나타난다.

『동트기 전(夜明け前)』 제1부의 끝은, 명치유신과 왕정복고의 즐거운 하루를 맞이하는 한조가 「먼 고대(遠い古代)」의 출발점으로 돌아갈 날이 왔다고 생각하고, 활기찬 새로운 시대의 예감에 마음을 설레는 상황에서 끝난다. 제2부의 비극적인 마지막 장면과는 실로 대조적이다.

동지9명, 그 사람들은 平田 문인 혹은 준 문인이지만, 等持院에 安置되어있는 足利尊氏以下, 2將軍의 木像의 목을 거두어서, 23일 밤에 그것을 三條河原에 흘려보냈다고 한다. (同誌九人、その多くは平田門人あるひは準門人であるが、等持院に安置してある足利尊氏以下、二將軍の木像の首を抜き取つて、二十三日の夜にそれを三條河原に晒しものにしたといふ。)

(1의6의9)

「우리들은 미토의 제군을 동정해 왔습니다. 실은, 당신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이다번의 입장을 생각하여, 미치지못하지만 알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同道하여 왔습니다. 우리들 3인모두 히라타아츠타네의 문인입니다.」「わたしたちは水戸の諸君に同情してまゐつたんです。實は、あなたがたの立ち場を思ひ、飯田藩の立ち場を思ひまして、及ばずながら斡旋の勞を執りたい考へで同道してまゐりました。わたしたちは三人とも平田篤胤の門人です。」

(1의10의2)

종래 국은의 만 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자세로 北原稻雄等에 의하여 계획된 선사유저 『고사전』 31권의 상목 반포는 한층 순조롭게 제 문인이 합동협력의 결실을 맺는다. 小野의 倉澤義髓, 清内路의 原信好와 같이, 중세부정의 제일보를 종교개혁에 두는 의미로서, 神佛混淆의 배척과 고신도의 복고를 알리기 위해, 함께 교도에 향하고자하는 자도 있었다.(從來國恩の萬分の一にも報いようとの意氣込みで北原稻雄等によつて計畫された先師遺著『古史傳』三十一卷の上木頒布は一層順調に諸門人が合同協力の實を擧げる。小野の倉澤義髓、清内路の原信好のやうに、中世否定の第一歩を宗教改革に置く意味で、神佛混淆の排斥と古神道の復古とを唱へるために、相携へて京都へ向はうとしてゐるものもある。)

(1의12의2)

이상은 『동트기 전(夜明け前)』 9)에 나타난 명치유신을 맞이한 히라타과 문인의 활동상황

9) 이하는 『동틀 무렵(夜明け前)』에 나타난 명치유신을 맞이한 히라타과 문인의 활동상황이다.

新しい社を建てる。荷田春満、賀茂真淵、本居宣長、平田篤胤、この国学四大人の御霊代を置く。伊那の穀を一望の中にあつめることの出来る山吹部の桑山(俗に小枝山とも)の位置を撰び、九畝歩ばかりの土地を山の持主から譲り受け、枝ぶりのおもしろい松の林の中にその新しい神社を創立する。

(一の十一の二)

帰國後の景蔵は香蔵と力を協せ、東濃地方にある平田諸門人を語り、来るべき東山道軍のために好き嚮導者たることを期してゐる。

(二の三の一)

이다. 명치유신이라는 시대상황에 응하여 히라타과 문인들에게는 실천사상이 나타난다. 이 사상의 중심은 「중세의 부정(中世の否定)」이고, 중세의 부정은 봉건성에의 반항이다. 히라타과 문인의 유신으로의 적극적 참가는 그 사상으로 봐서 당연하다. 아시카가(足利尊氏)의 목상의 목을 산조가하라(三條河原)에 참수형시킨다던가, 미토(水戸)의 낭인과 이이다(飯田)藩과의 알선, 중세부정의 종교개혁의 제일보로서 『고사전』의 상목령포, 국학 4대인을 제사지내는 山吹촌에 條山神社의 설립, 동산도군을 위한 향도를 지원, 신정부의 신기관등 요직에의 진출 등, 히라타과 문인들의 초기 활동은 실천적이고 또한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한조가 교부성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동료와의 다툼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이전의 신기국은 스승 平田鐵胤을 비롯하여, 樹下茂國, 六人部雅九人樂, 福羽美靜 등의 히라타과 제 선배가 유신하에 문교 혹은 신사행정 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중심 무대이다. 스승의 주위에는 平田延胤, 師岡正胤, 權田直助, 丸山作樂, 矢野玄道, 그리고 한조에게는 특히 친밀감 깊은 暮田正香 등의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간접으로 복고를 위해서 일했다.(しかし、半藏が教部省を去らうとしたのは、こんな同僚とのいきさつによるばかりではない。何と言つても、以前の神祇局は師平田鐵胤をはじめ、樹下茂國、六人部雅九人樂、福羽美靜等の平田派の諸先輩が御一新の文教あるひは神社行政の上に重要な役割をつとめた中心の舞臺である。師の週圍には平田延胤、師岡正胤、權田直助、丸山作樂、矢野玄道、それから半藏には殊に親しみの深い暮田正香等の人達が集まつて、直接に間接に復古のために働いた。)

(2의12의2)

히라타과 여러 선배들이 제정일치를 위해서 고생한 것도, 거기에 대신하여 조직된 신불합동 대교원과 같은 정부 교화사업이 결국 실패로 끝나야 할 운명인 것을 알게된 것도, 그 짧은 나날이었다. 여기까지 유신의 길을 연 모토오리웅과 같은 이조차도 많은 관리들에 의해 어떤 식으로 취급되어지는가를 알게된 것도, 또한 그 때였다.

(平田派諸先輩の覺者達が祭政一致の企てに手を焼いたことをも、それに代つて組織された神佛合同大教院のやうな政府の教化事業が結局失敗に終るべき運命のものであることを知つて來たのも、その短い月日の間であつた。こゝまで御一新に路を開けたあの本居翁のやうな人さへも多くの俗吏によつてどんな風に取り扱はれてゐるかを知つて來たのも、またその間であつた。)

(2의11의3)

飛驒行에 대해 권해준 이 의학자에게도, 恭順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준 不二麿에게도, 또한, 한조가 平田篤胤 물 후의 문인이고 다년간 勤王의 뜻이 깊은 사람이라고 듣고 꼭 水無神社의 宮司를 갈망한다 라고 한 飛驒地方 유지에게도 이들 사람들의 후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조는 감사하여도 좋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그는 옛친구의 일기를 빌려 받아, 恭順의 집을 나왔지만, 옛 신사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온 것은, 그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에게는 꿈과 같았다.(飛驒行のことを勧めて呉れたこの醫者にも、恭順を通じてその話を傳へさせた不二麿にも、又、半藏が平田篤胤歿後の門人であり多年勤王のこゝろ

一行には、半藏が親しい友人の景藏、香藏、それから十四五人の平田門人が軍の嚮導として隨行して來た。 (二の四の一)
神祇官の中心勢力をかたちづくる平田派の學者を率ゐて、直接に新政府の要路に當つてゐるとか。今は師も文教の上にあるひは神社行政の上に、この御一新の時代を導く年老いた水先案内である。全国の代表を集めて大に国是を定め新制度新組織の建設に向はうとするための公議所が近く東京の方に開かれる筈で、その會議も師のやうな人の體驗と精力を待つてゐた。 (二の六の六)

ざしも深かつた人と聞いて是非水無神社の宮司にと懇望するといふ飛驒地方の有誌者にも、これらの人達の厚意に對しては、よほど半藏は感謝してゐると思つた。やがて彼は舊友の日記を借り受けて、恭順が家の門を出たが、古い神社の方へ行つて仕へられる日の來たことは、それを考へたばかりでも彼には夢のやうな氣さへした。(2의12의3)

명치유신 이후에 신불 혼합의 금지, 폐불 회석 운동이 일어나고, 히라타파 문인의 의도대로 사태가 진행된 것도 잠시, 이윽고 모든 구제도의 폐지가 선포되고, 한조도 아오야마(青山)집안 전래의 직업을 잃게된다. 산림해방 운동의 결과, 호장에도 면직된다. 그러나 한조는 단지 신 정부에 복고를 기대한다.

한조는 히라타 테츠타네(平田鐵胤)를 중심으로 하는 신기관에 희망을 건다. 그러나 그 신기관도 신기성으로, 더 나가서 교부성으로, 결국은 문부성으로 개편된다. 가족과 헤어져서 4년 간 히타(飛驒) 미즈나시(水無)신사의 관사가 된 한조는 「새로운 고(新しき古)」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 정부의 방침은 새로운 고의 길을 기대하는 한조의 이상과는 달리, 제정 일치에서 정교 분리의 방향으로 변해간다.

「봐라,」고 말하는 마사카의 눈은 빛났다. 「우리들은 서로 10년 후를 기약했다. 이렇게 빨리 국학자를 인정해줄 시대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대정의 복고가 건무중흥의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신무의 창업까지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그런 것을 재창한 자도, 저 玉松이지. 복고는 서로의 신조야. 그러나 자네 복고가 복고인 것은, 그것이 달성할 수 없는 점에 있어. 막 엉터리로 할 수 있는 것이, 복고는 아냐. (중략) 아무리 어제의 새로움은 오늘의 헌것이라고들 하는, 이런 빠른 조류의 세상에서도, 이리하면—정말 안 된다.」(「見たまへ。」といふ正香の眼はかゞやいて來た。「われわれはお互に十年の後を期した。こんなに早く國學者の認められる時が來ようとも思はなかつた。そりや、この大政の復古が建武中興の昔に歸るやうなことであつちやならない、神武の創業にまで歸つて行くことでなくちやならない—あゝいふことを唱へ出したのも、あの玉松あたりさ。復古はお互の信條だからね。しかし君、復古が復古であるといふのは、その達成せられないところにあるのさ。さう無造作に出来るものが、復古ぢやない。(중략)いくら、昨日の新は今日の舊だといふやうな、こんな潮流の急な時勢でも、これぢや—まつたく、ひどい。」)

(2의9의4)

히라타파의 문인으로서, 복고의 희망의 성취함의 어려움도, 동문들의 차질에서도, 정말 그것을 알았다.(平田派の門人としての彼は、復古の夢の成り難さにも、同門の人達の蹉跎にも、つくづくそれを知つて來た。)

(2의10의2)

그 때가 되자, 많은 국학자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 한조의 동문 여러 선배조차, 자칫 잘못하면 격렬한 조류에 흘러가 버릴 듯이 보였다. (중략) 가장 옛것에 착안하여, 게다가 가장 새로운 길을 후학에게 가르친 것은 국학자 동료들이었다. (中략) 거기에서 하나의 정신이 생겨났다. 이 정신은 많은 몽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라났다. 뒤에 히라타 아츠타네 및 히라타파 문인들은 점차적으로 실행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선 거기에서 배태했다. (중략) 국학은 근대의 학문의 하나로서 무엇보다도 그렇게 갑자기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その時になると、多くの國學者はみな進むに難い時勢に際會した。半藏が同門の諸先輩ですら、ややもすれば激しい潮流のために押し流されさうに見えて來た。(中略) 最も古いところに着眼して、しかも最も新しい路を後から來るものに教へたのは國學者仲間の先達であつた。(中略) そこから、一つの精神が生まれた。この精神は多くの夢想の人の胸に宿つた。後の平田篤胤、及び平田派諸門人が次第に實行を思ふ心は先づそこに胚胎した。(中略) 國學は近つ代の學問の一つで、何もさうにはかに時世後れとされるいはれはないのであつた。

(2の11の4)

확실히 국학은 근대정신의 한 현상이다. 여기에 국학의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복고가 복고인 것은, 그것이 달성되지 않는 점에 있다(復古が復古であるというのは、その達成されないところにある)」라고 말한 대로, 국학자들은 복고를 꿈꾸는 사람들로 열의와 성실성에 넘쳐있다 하더라도, 「복고의 성취의 어려움(復古の夢の成り難さ)」 「동문 사람들의 차질(同門の人達の蹉跌)」, 소위 정치적 능력의 부족과, 정치적 타협과 기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명치 10년대를 기점으로 히라타과의 국학에는 수구적·보수적인 현실안일의 경향이 보여진다. 「근대(近つ代)」가 「근대(近つ代)」인 것은, 그것이 현실에 달성되지 않는 점에 있다.

아버지에게는 중세 부정이란 것이 있었다. 원래 중세기에 있어서 무가 막부의 개설과 함께 왕권의 陵夷는 해야만 할 사실이고, 존왕의 생각에 깊은 히라타과의 학자들이 北條 足利 二氏의 전횡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일본 민족의 순수한 시대를 유불교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전에 둔 아버지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중세를 생각하게 된 것도, 이것 또한 자연의 귀결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전국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德川氏의 대정봉환이 되고, 명치 시대를 맞이할 날이 될 때까지, 그렇게 부정을 고집했어야만 했을까? 다시 아버지가 모토오리과와 손을 잡고, 서로 荷田 賀茂, 모토오리 여러 선인의 일을 회상하고, 어두움만을 생각해 하는 중세에서 전해져온 사상에만 잠길 수 있는 날이 이미 오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들의 청춘의 날이 다시 우리들에게 오지 않듯이, 大和 민족청춘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 것으로 아버지의 눈에 비쳤던가? 좋던 싫던, 이 국민이 중세 이래의 체험을 기초로 하지 않고, 어디에서 아버지는 제2의 봄을 찾을 것인가?

(父等には中世の否定といふことがあつた。もとより中世期に於ける武家幕府の開設に伴ひ王權の陵夷は争ふべからざる事實であつて、尊王の念に厚い平田派の學者達が北條足利二氏の專横を許しがたいものとしたのは當然のことであつた。日本民族の純粹な時代を儒佛の教の未だ渡來しない以前に置いた父等が、ひどく降つた世の姿として中世を考へるやうになつて行つたのも、これまた自然の歸結であつたらう。けれども日本全國が本來の姿に歸り、德川氏の大政奉還となり、明治の御代を迎へた日になつてまで、さういふ否定を固執すべきものであつたらうか。もう一度父等が本居派の人達と手を握つて、互ひに 荷田、賀茂、本居等諸先人の仕事を回想し、聞くのみ考へられてゐた中世から流れ傳つたものに思を潛めるやうな日は遂に來なかつたであらうか。わたしたちの青春の日が二度とわたしたちに來ないやうに、大和民族青春の時代は再び歸り來ないものとして父等の眼に映じたらうか。好かれ悪しかれ、この國民が中世以來の體驗を基礎とすることなしに、何處に父等は第二の春を求め得

たらうか。)

(「回顧」父を追想して書いた國學上の私見)

아버지에게는 중세의 부정이라는 것이 있었다. 어두운 시대라고 간주되었던 시기에 히라 타학에서부터 시작되는 「중세의 부정(中世の否定)」이라는 점에 고집을 핀 아버지를 비판 하고, 모토오리과와 손을 잡고, 중세에서 전해져 온 것을 더욱 깊이 고찰하고, 생각을 피력 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청춘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도손은 지금의 일본 국민이 「중세 이래의 체험을 기초로 하여(中世以來の體驗を基礎とし)」 성립되었고, 중세 없이는, 지금의 일본은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현재에의 부정

『동트기 전(夜明け前)』은 소화4년에서 10년까지 「중앙공론」에 연재되었다. 마침 이 시기는 히라노 켄(平野謙)이 말하는 사소설에 의해 대표되는 기성 리얼리즘 문학과, 신감각과 에서 신 심리주의에 이르는 모더니즘 문학과,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염원하는 마르크스주의 문학이 정립한 채로 현대문학의 흐름으로 넘어가는 시대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과 파시 즘의 길로 굴러가는 소화의 일본에서, 『동트기 전(夜明け前)』은 폐쇄의 시대를 사는, 소화를 응시하는 지식인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씨 (필자주·도손) 은 『새로운』 일본을 다시 생각해 보고 싶다 는 마음에서, 어떤 의미 에서 그 일본의 기초를 다진 유신에 눈을 돌린 것이다. 그것과 함께 현재의 『嵐』 과 같 은 시대에 대처하는 씨의 인간적인 태도를, 현재와 다분하게 동일성을 갖은 (형태상에서) 시대 묘사 속에서, 충분히 구체화하고 싶다고 느꼈을 거다.(氏(筆者註·藤村)は『新しい』日本と云ふものを見直し度いと云ふ氣持ちから、ある意味でその日本の基礎をすえた維新へ眠を向けたのだ。それと同時にまた現在の『嵐』のやうな時代に處する氏の人間的な態度を、現在と多分に同一性をもつた(形態の上からであるが)時代の描寫のうちに、十分に具體化したいと慾したのだ。)10)

아오노(靑野季吉)의 비평이지만, 결론은, 작가의 묘사가 「어디까지나 현상형태에 끝나고, 그 현상형태를 전개해 온 사회의 내적 필연은, 이 제1부에서, 명확하게 파악되고, 화려하게 표현을 부여했다고 말할 수 없다 (飽くまで現象形態にとどまり、その現象形態を展開して來る社會の內的必然は、この第一部において、明確に把握され、輝かしく表現を與えられてゐると言へない) 라고 술하고 「단순한 역사소설이 아니고, 역사의 창을 통한 사소설(單なる歴史小説ではなく、歴史の窓を通じた私小説)」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카츠모토(勝本清一郎)도 「이 파쇼적인 현재의 세상 속에서조차, 모든 인텔리에 의해 아무런 반감 없이, 따듯한 동정의 염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 만큼, 『동트기 전(夜明け前)』 전체는 오히려 현시의 우국 강개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깊은 경고의 책이다(このファッショ的な現在の世の中にあつてさへ、總てのインテリゲンチャによつて何らの反感なく、濫い同情の念で讀まれ得るといふ事も、註目に價する。それだけに、『夜明け前』全體はむしろ現時の憂國慷慨の人々に對しては、深い警告の書でないこともない)」11)라고 거의 같은 논을 전개하고

10) 「『夜明け前』(第一部)を論ずる」(「新潮」、昭和七年二月)

11) 「島崎藤村論」(「日本評論」、昭和十年十二月)

있다.

씨는 오늘의 시대를 이해하고, 또한 동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혹은 그 속으로 뛰어 들어서, 게다가 그 行手를 나타내려하는 기세로서, 「夜明け前」 원고를 쓴 것이다. 이 「夜明け前」는 명치유신과, 명치 대정의 문화는 아니다. 필경 오늘의 한편을 나타내는 것 일 것이다.(氏は今日の時代を理解し、また同情してゐられるばかりでなく、或はその中に躍り込み、更にその行手を示さうとする意気込みで、「夜明け前」の稿を起されたのであらう。この「夜明け前」とは明治維新や、明治大正の文化ではあるまい。恐らく今日の彼方を指すのであらう)12)

『동틀 무렵(夜明け前)』이 발표된 소화 초년대의 시대 동향과 맞추어 생각하면, 이 비평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무렵은 명치유신의 과학적 연구가 행하여지기 시작하였던 시기로서 그 연구대상이 경제, 법제, 사회, 사상의 전 분야에 걸쳐서 널리 행하여지던 시기이다. 그런 흐름 속에서, 『동트기 전(夜明け前)』이 유신을 그린 역사소설로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비평 중에도 이와 같은 이해에서부터의 비평분석 방법의 눈에 띈다.

藤村의 『동트기 전(夜明け前)』의 전반에는, 농민에 대한 봉건 지배자의 계급적 압박을 괴로워하면서 응시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명치유신을 무가인 지식자들의 입장이 아니고, 더욱 아래의 입장, 민초 속에서 그리려고 했다는 의도와, 개인이 역사의 대전환기와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한 그 의도 속에는, 당시 이 작품의 집필 시 고양하기 시작한 혁명운동과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영향이 단연 두드러진다(藤村の『夜明け前』の前半には、農民に對する封建支配者の階級的壓迫を、苦しみを持って凝視している主人公の姿が描きだされているところがある。また、明治維新を武家たる誌士たちの立場からでなく、もっと下の立場から—草むらのなかから描きだそうとしたという意圖と、個人のがわから歴史の大轉換期とのつきつめた關係をさぐろうとしたその意圖との中には、この作品が書き始められた當時まさに高揚し始めていた革命運動とプロレタリア文學との明らかな影響がある)13)

제2부에서 한조가 국학에 기대한 이상이 실망을 느낄 때, 재차 일찍이 무가가 지배한 무단정치의 부활을 걱정하는 한조가 그려져 있지만, 그것은 시기적으로 소화 초기의 군벌 횡행과 대응한다. 도손은 주위 깊게 정치적인 발언을 일절 피한 사람이지만, 한조의 비극에 가탁한 도손의 걱정은 깊었다고 사료된다. 혁명운동과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영향이 있던지, 소화 초기 군벌의 횡행과 대응하기 위해서 든 지, 『동트기 전(夜明け前)』 집필시의 藤村은 심중에 유신 시대 뿐 만 아니라, 격동의 소화 초기의 「현재」를 응시하였던 것은 확실하다. 아오노(青野季吉)와의 일문일답에서 藤村은, 「웬지 나에게서 그러한 것의 연결—안에서의 연결이 웬지 확실하지 않는 경우가 많군요(どうも、私にはさういふものの繋がり—中の方の繋がりはどうもはつきりしない場合が多いですね)」라고 역사의 인식의 어려움을 논하고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도손이 소화 초기에 시점을 두고있다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

12) 川端康成 「島崎氏の『夜明け前』」(「文藝春秋」、昭和四年八月)

13) 小田切秀雄 「現代文學史」下卷(一九七五年十二月、集英社)

다. 여명이라고 믿었던 유신은 주인공에게 너무나도 어두운 것이었다. 그 어두움이 소화 초년 대라는 현재의 어두움에 비추어 오고 있고, 거기에 작자 도손의 『동트기 전(夜明け前)』 집필의 동기를 볼 수가 있다.

[付記]

島崎藤村 작품의 인용은 築摩書房版 (『藤村全集』 소화41년) 에 의한다.

参考文献

- 窪田空穂「島崎正樹翁のこと」(『窪田空穂全集』第六卷昭和四十年六月、角川書房)
芳賀登「『夜明け前』の実像と虚像」(一九八四年三月、教育出版センター)
三好行雄『島崎藤村論』(昭和五九年一月、筑摩書房)
十川信介『藤村文明論集』(一九八八年七月、岩波文庫)
和田謹吾『島崎藤村』(昭和四一年三月、明治書院)
『折口信夫全集』第二卷(昭和四十年十二月、中央公論社)
吉川幸次郎『本居宣長集』(一九六九年三月、筑摩書房)
『折口信夫全集』第二卷(昭和四十年十二月、中央公論社)
須藤宏明「『夜明け前』における『私』の問題・その桎梏と希求」(1992年2月、青山学院高等部)
西郷信綱『國學の批判』(一九六六年十二月、未來社)

要旨

藤村は国民学術協会企画の同協会叢書(昭和十六年に『回顧』と題して書いた感想)で、「過去こそ真実であるとは、多少なりとも今日を反省するたよりとしよと思ふものにつけて意味ある言葉となる。しかしながら、いかにして過去を探り求むべきか。過去が死物でないかぎり、この事は容易でない」と述べ、父島崎正樹の時代を探り始める。藤村の父の正樹は平田篤胤没後の平田派門人の一人であり、藤村も幼少の頃から国学者の教養を傍近くで見聞している。『夜明け前』に現われた平田派の国学をどう評価するにせよ、例えば、本居宣長の著書を読み、そこから出た「古代の人に見るやうなあゝの直ぐな心は、もう一度この世に求められないものか。どうかして自分等は出発点に帰りたい。そこからもう一度この世を見直したい」(一ノ三ノ一)という声は、自然で、素樸な生命観に立つ藤村の要求でもある。

키워드

國學, 神道, 근대정신, 복고, 히라타아즈타네

2차심사: 2002. 9. 12

3차심사: 2002. 10. 5

주 소: 천안시 안서동 115번지 천안대학교

전 화: 041)-660.9417(연구실), 041)575.3278(자택)

E-mail : imsung@cheonan.ac.kr

K C I